

탄환 사용 장난감 총, 어린이 사고 꿈이지 않는다

장난감인지 진짜 총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가 많다. 장난감 총의 성능이 점점 더 강력해져 다칠 위험성은 더 높다. 이들 총의 파괴력은 종이를 뚫을 정도로 강해 눈에 맞으면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다.

■글/이해각(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

김주현 어린이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어린이가 쏜 장난감 총알에 맞아 머리에 피가 나는 부상을 입어 네바늘이나 꿰매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탄환을 사용하는 장난감 총에 의한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자주 일어난다.

총알에 맞아 눈 다치는 사고 가장 많아

탄환을 사용하는 장난감 총의 안전 문제는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1989년 이래 4회에 걸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에 개선을 건의했다. 1995년 본원에서 실시한 '장난감 총의 안전성'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건의해 정부에서 1996년 1월 23일 '완구 안전 검사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완구 안전 검사 기준'에 의하면 탄환을 발사하는 장난감 총은 전기, 관성 또는 태엽을 사용하는 사전 검사 품목(작동 완구)과 작동 완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후 검사 품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전 기준에는 장난감 총에 관해 별도의 규정 없이 발사체를 가진 완구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기준에는 장난감 총에 대해 탄환의 형태·무게·평균 운동 에너지 등 세부 항목을 14세를 기





준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1999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탄환 사용 장난감 총에 의한 사고자의 상해 부위를 보면 전체 상해 49건 중 34.7%(17건)가 눈을 다쳐서 실명의 위험 등 상해가 매우 심각했다. 그 다음 코 30.6%(15건), 귀 14.3%(7건) 등을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유형은 탄환에 눈을 맞아 전방 출혈, 각막 찰과상, 각막 혼탁이 되거나 치아 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탄환 사용 장난감 총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1997년 '탄환 사용 장난감 총 안전 실태 조사' 결과,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 2000년 4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탄환 사용 장난감 총에 의한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탄환 사용 장난감 총에 의해 눈 등을 다친 월 평균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1993년 이래 월 평균 1건 이상 발생했다. 1996년 완구 안전 검사 기준이 개정,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으나 1999년 월 평균 4.1건 발생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건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 정보 보고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과 소비자모니터를 통해서 접수된 수치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 사항으로는 완구 안전 검사 기준의 내용 보완 및 추가를 위한 개정 건의, 초등학교 이하 탄환 사용 장난감 총에 대한 사용 제한, 개조

개정된 현행 작동 완구 안전 검사 기준

구 분	안전 검사 기준
탄환 형태	앞부분은 구형, 직경 5.7mm 이상
탄환 무게	0.2g 이하
평균운동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연령 14세 미만 : 0.008kg.m 이하 • 사용 연령 14세 이상 : 0.02kg.m 이하
안전 장치	갓총
표 시	평균운동에너지가 0.008kg.m 이상인 것은 수평 사격에 대한 경고 표시
기 타	본래의 탄환이 아닌 다른 탄환을 사용할 때에는 발사되지 않는 구조여야 함.

방지 대책 강구, 장난감 총의 판매 장소에 대한 제한 검토, 보호자들의 주의 요구 등이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완구로 분류되는 탄환 사용 장난감 총을 제작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1994년 호주 정부는 파괴력이 강한 장난감 총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폐기 조치를 한 바 있다.

기존의 판매된 탄환 사용 장난감 총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고 되도록 폐기도록 하거나 어린이들이 탄환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총을 갖고 놀게 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장난감 총알에 맞아 단순한 발적 정도만 있다면 냉찜질 등 간단한 응급 처치로 수습이 된다. 열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거나 피부에 박히면 손상 부위를 깨끗이 하고 압박해 지혈한 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총알에 맞아 눈을 다친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상책이다. ⑤